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십자가와 행복(마태오 10,37-42)

이혼·사별 가정 회복세미나 어바인 베델교회

어바인 베델교회(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가 "Beyond the blue(B+B, 이혼 회복 모임)세미나" 를 연다. 세미나는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오후 9시까지 화상애플리케이션 줌(zoom) 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B+B는 사별, 별거 이혼 등으로 상처 받은 가정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한 세미나 및 소그룹 모임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홀로서기 훈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우는 치유 회복 프로그램이다. 참석 대상은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위기에 놓인 가정의 구성원이다. 등록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20달러이며, zoom 입장 방법은 등록 시 알려준다. 등록은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할 수 있다.

▶문의: (949) 735-8472, (949) 422-8828

교황 부활절 미사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올해 사순 시기 및 부활절 미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반 신자의 참석이 제한된다.

최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로버트 사라 교황청 경신성사성 장관은 지난 17일 "여전히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 아래 있어 기존 방식대로 예배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의 수요일' 인 이날부터 부활절(4월 4일) 전까지의 사순 시기 교황이 주례하는 미사를 비롯해 모든 전례가 소수의 신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처럼 성목요일의 '세족례' 는 생략되고, 통상 로마 콜로세움에서 진행되는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의식도 규모가 크게 축소되거나 성베드로대 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순 시기는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기념하는 교회력 절기다.

"고통은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어쩌다 초대 교회사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순교자들의 사화를 읽을 때는 정신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조여 옵니다. 십자가형이 그렇게도 가혹하고 비참했던가를 지금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십자가 형벌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십자가' 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며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십자가' 란 곧 피와 땀과 고통을 대신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바로 고통이기에 고통을 원하지 않는 우리로서는 십자가는 달갑지 않으며,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란서의 유명한 문학가 뽀끄르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십자가의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행복도 원하지 말라' 참으로 고통 즉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



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영원한 행복으로 한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의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신비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는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실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되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갈 충분한 힘과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포기할까봐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의 좁은 가시밭길을 오르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지극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외면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종말에 행복하기 보다는 틀림없이 멸망할 비운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도 십자가를 외면한 채 고통을 피하고 오히려 쾌락만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용서 청해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는 것은 매일 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극복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쾌한 나날의 유혹과 괴로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용기와 희망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는, 곧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면 철수록 더욱 고통은 심해지며,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갈수록 더욱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와 같이 만남의 고통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질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형락 신부-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 모집 인원 풀타임 디자이너 1명
- 제출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각 1부
- 서류 제출 방법 info@townnewsusa.com 이메일 제출
- 기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일정은 개인별 통보함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Rosecrans Ave + Valley View Ave)